

병원이 복지관으로 찾아왔어요!

2026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함께하는 건강지원사업



▲기본검진을 받고 있는 참여자들.



▲치과검진.

많은 장애인들에게 병원은 선뜻 찾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들의 어려움, 수많은 의학용어들과 의사소통의 불편함,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까지. 그렇기에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을 찾는 일은 더욱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쌓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우리 복지관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함께, 이용자들이 편하게 드나드는 복지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지원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복지관과 다사랑행복센터 입주기관 이용자 총 35명이 참여했습니다.

검진은 문진을 바탕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거쳐, 필요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검진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참여자의 장애 특성과 생활 습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검진항목은 혈압·혈당 측정,

심전도 검사, X-ray 촬영, 치과 검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이번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5년, 다시 힘차게

동대문구-동안복지재단 재위탁 협약

3월 3일, 동대문구청장 접견실에서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동대문구청의 수탁 법인 공고와 심사를 거쳐 운영 주체가 결정됩니다.

올해 실시된 심사 결과, 개관 이후 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이 향후 5년간 운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운영 성과와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 예정입니다.



▲3월 3일 진행된 민간위탁 협약식.

특히 올해는 복지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며, 새로운 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

장애인 서포터즈 ‘다리:미(美)’ 발대식

지난 3월 26일 2026년 장애인 서포터즈 ‘다리:미(美)’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들에게 임명장이 전달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리:미(美)’는 ‘모두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결다리가 되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주민 참여 활동인데요.

올해 서포터즈는 동대문구 내 배리어프리 환경을 직접 탐방하며 관련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월 2회 음식점, 카페, 공원, 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시설을 방문해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올해 ‘다리:미(美)’ 서포터즈의 활동이 지역 내 장애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서포터즈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 함께 돌보는 삶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동대문구청에서 매일 2회 진행되는 통합지원회의. /사진출처: 동대문구청

▶통합돌봄 관련 상담 및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 동 대표번호 +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 02-2173-1271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팀 : 02-2127-5233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지난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 중심이 아닌, 거주지에서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 등 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의료 서비스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복지 서비스는 복지관에서, 돌봄은 또 다른 기관에서 따로 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요. 통합돌봄은 이러한 구조적 단절을 줄이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설계해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필요

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지원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입니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고령 장애인과 치매·뇌병변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우선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우리 복지관도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일 2회 동대문구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해 사례 논의 및 서비스 연계를 함께 수행하며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옆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



장애유형 ‘취장장애’ 신설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유형에 ‘취장장애’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존 15개였던 장애유형이 16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장애 종류가 추가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입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영구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외부 인슐린 투여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중증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장애

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장장애를 16번째 장애유형으로 신설했고, 오는 7월부터 1형 당뇨병 환자가 취장장애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의 일상에 이번 개정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또 다시 맞는 장애인의 날의 단상

올해로 46주년을 맞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장애당사자의 자립과 사회참여 열정을 진작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복지 현장은 이 날을 기념하고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합니다.

제가 일하는 장애인복지 현장은 매일 왁자지껄 소란스럽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고, 재활훈련을 하거나,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캘리그라피로 멋진 글씨를 쓰고, 구령에 맞춰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등 활기찬 움직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가만 들여다보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이죠. 대다수 장애인은 부모, 형제, 부부 등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등 전문 돌봄 인력과 거의 하루를 같이 보냅니다.

부모의 경우 자식의 장애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열과 성을 다해 보살피지만 정작 가족 중 장애 당사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이들은 형제자매입니다.

저는 복지관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 중 장애인과 형제, 자매가 함께 동행할 때 가장 마음이 쓰입니다. 동생이 장애인이거나 형이나 누나, 언니나 오빠가 장애인인 경우 어린 시절부터 돌봄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부여받아 정작 아동기나 학령기에 본인이 받아야 할 애정이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숙명처럼 그 명예를 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중학교 2학년 오빠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물리치료가 되고 성인이 되어 정작 자신의 가정을 꾸렸음에도 늘 오빠를 돌보는 여동생, 심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동생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매일 3시간씩 동생의 하갯길을 책임지는 형,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대신해 4시간씩 일을 하는 자폐성 장애인 동생의 오후를 책임지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돌봄을 도맡은 형, 발달장애인 언니를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여동생 등 사연마다 아주 길고 지난한 인생길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돌봄 주 담당자인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어릴 적에는 학교생활을 함께 하거나 선후배 관계로 일상을 함께 해야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늙어가는 부모를 대신해 돌봄을 맡게 되고 부모의 사후에는 마지막까지 장애인의 인생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형제자매에게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무관심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롯이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돌보기 위해 청춘의 시간을 보내는 젊은 청춘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숙연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에는 함께 대화도 하고 차도 나누면서 장애인의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자기 몸과 마음을 늘 애뜻하게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제도나 정책, 복지환경이 좋아졌다고 모두들 입을 모아 얘기하지만 정작 오늘도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땅의 수많은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이 있음을 우리 사회가 알아주고 누구라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기를,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위로를 건네기를 소망합니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황주연 관장

*이 글은 저자가 한국기독교공보에 기고한 칼럼(2024.10.25)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의 말 |

이번 달의 주제는 이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요. 나의 힘듦을 먼저 알아봐 주는 이웃, 도움이 필요한 순간 기꺼이 걸음으로 와주는 이웃. 좋은 이웃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이웃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복지관으로 찾아온 지역 병원부터, 동네 곳곳을 발로 뛰며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기록하는 서포터즈들, 그리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통합돌봄 관계자들까지. 장애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이번 호에 담았습니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마음들이 모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김동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